

## 자연생태계 보전 노력

### 1. 지구온난화 대응노력

SK는 정유업계의 Leading Company로서 전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5개년 간 SK 발생 온실가스량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2년 전사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전사 지침으로 활용해 오고 있으며 자체 에너지 절감 노력과 더불어 대정부 기후변화협약 정책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책 및 산업계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실행방안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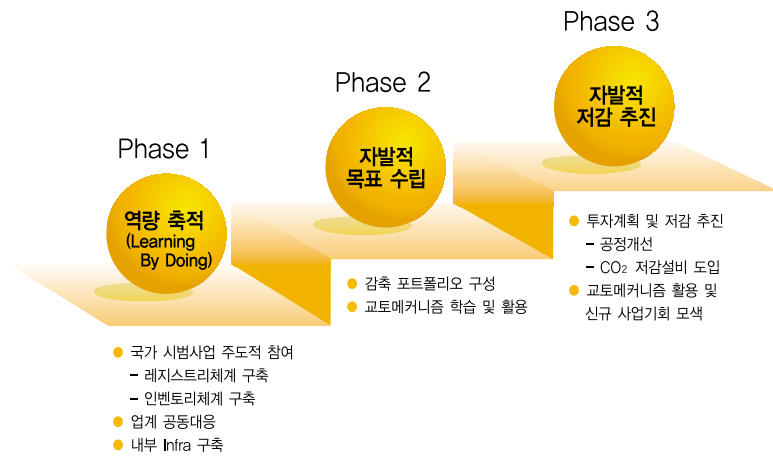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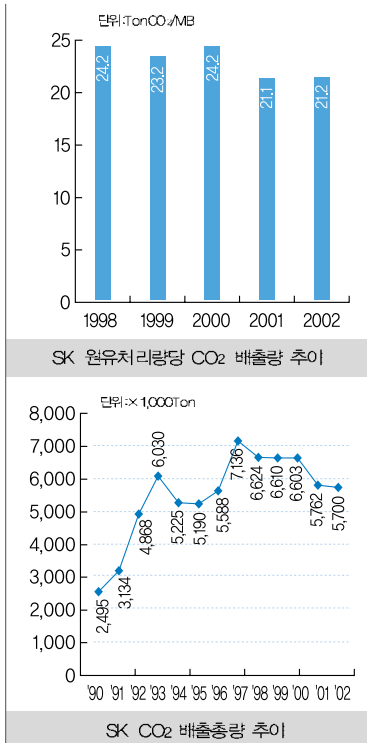


Fig 46. SK 기후변화 협약 전략 실행단계

Fig 47.



에너지 절감 노력의 경우 2000년부터 시행중인 정부의 자발적협약 (VA: Voluntary Agreement)에 참여, 에너지절감 및 CO<sub>2</sub>배출감축 5개년 목표를 수립, 시행해오고 있으며 협약 시행전인 '99년 대비 2002년 총량 14%, 원단위 총 6%의 CO<sub>2</sub>배출량을 감축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온 자발적협약 활동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TOP (Total Operational Performance)활동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더불어 2002년 국가차원의 레지스트리 등록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저감량을 국제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등록하는 연구사업으로서 향후 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한국의 저감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국내 산업계의 자발적인 CO<sub>2</sub> 조기감축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연구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3년 현재 등록된 온실가스 레지스트리의 검증방안을 수립하는 2차 시범사업에 지속 참여하여 국내 산업계에 맞는 M&V (Monitoring & Verification)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기후변화협약관련 대정부 연구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여 산업계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국내 산업계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의 근거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2. 울산대공원 조성사업

SK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친 환경적 공간 마련과 그동안 성장과 발전의 터전이 되어온 백만 울산시민에게 감사와 헌신의 뜻으로 1996년부터 10년간 약 1,000억원을 투자하여 생태공원 성격의 울산대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 공원은 2002년 4월 일부 개장되어 울산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자연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2005. 12월 조성이 완료되면 울산시민에게 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및 옥동일대  
 면적 : 110만평 (시설부지 23만평)  
 사업기간 : 1996~2005년(10년간)  
 1차개장 : 2002. 4월  
 2차개장 : 2005. 9월  
 홈페이지 : www.ulsanpark.com



Fig 48. 이루이시스 내부



Fig 49. 울산대공원 정문 광장



Fig 50. 풍요의 언뜻과 풍차



Fig 51. 울산대공원 전경

### 3. 사업장 주변 환경개선활동



Fig 52. 태화강 정화활동

SK는 사업장 내 주변지역의 친 환경공간의 확대를 통한 임직원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마련과 생태환경보전,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전 임직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녹지사업 및 사업장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주변 환경개선활동은 크게 태화강 정화 활동, 울산 CLX 대청소 활동, 사업장 내 환경정화수 식수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활동	활동계획		주기
	장소	활동내용	
태화강 정화활동	태화강	하천 정화활동	1회/분기
울산 CLX 대청소	공장주위	공장주위 환경등산 대청소 및 인근하천 청소	1회/년
환경정화수 식수사업	사업장내 주변	녹화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정화수 식수	년중지속

Table 10. 사업장 주변 환경개선활동

### 4. 지역사회 환경보전활동



Fig 53. 환경교육장 개방

SK는 사업장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보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외부화된 환경오염문제를 기업에 내재화 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보전운동에서 환경교육, 환경 NGO활동 지원에 이르기 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자연 환경보전과 더불어 대외 지역주민의 환경의식 함양에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행사내용	주기	대상	내용
환경교육장 개방	2회/월	초, 중, 고, 대학생 및 학부모	지역사회 학생 및 시민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 및 환경의식 고취
SK 환경사랑 글모음 잔치	1회/년	전국 초등학생	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 및 환경의식 고취
1사하천 정화활동	1회/월	전 종업원	태화강 정화활동
1사 1산 가꾸기	1회/분기	전 종업원	정화활동, 계곡수로 정비, 등산로 보수
민관합동방제훈련	1회/년	지위방제원	오염방지 및 방제훈련지원
자연보호 등산대회	1회/년	전 종업원	신불산 청소 및 자연보호

Table 11. 지역사회 환경보전활동 및 지역주민 지원

행사내용	주기	대상	내용
환경의날 행사	4회/년	지역주민 및 종업원	지역하천, 해안 및 인근산 정화활동
물익날 행사	4회/년	지역주민 및 종업원	지역하천, 해안 및 태화강 정화활동
한국국제봉사기구 (KVO) 활동지원	수시	초, 중, 고, 대학생 환경소년단	구호품 보내기 및 환경교육
환경홍보지원	수시	지역주민	환경캠페인 및 현수막 설치
NGO지원	년1회	환경운동연합/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시민연대	연회비형식의 NGO 활동 후원
불조심 강조캠페인	2회/년	지역주민	울산남부소방서와 불조심 강조행사 운동지원

Table 12. 대관청 및 사회단체 행사지원활동

## 11회 SK 환경사랑 글모음 잔치 11회 대상

제목 : 자연과 생명에 대한 체험 이야기

김건구 인천신흥초교 6학년 3반

인천 월미도에 있는 월미산은 군부대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하지 않았었는데 50년만에 월미산을 개방하여 우리들 품에 안기게 되었다.

우리 학교에 계시는 도재숙 선생님께서 월미산 지킴이신데 나와 동생이 학교 대표로 월미산 지킴이를 하게 되었다. 산에 오르는 것이어서 힘들 것 같았지만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청진기로 나무에 붙여 대어서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듣기 활동을 하였다. 잘 안 들렸지만 의사가 된 기분이었다.

그 다음에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는 자연 탐방로 길로 갔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다.

“은행나무는 공룡이 살았던 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화석나무라고도 해요. 큰 특징은 소나무와 암나무가 구별되어 있는 나무며, 공해에 강하고 생명력이 강해요. 가로수, 목재, 한약재로 이용하기도 하죠.”

나는 암,수 구별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민들레도 우리 민들레와 서양 민들레가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다. 서양 민들레는 일정한 시기가 되면 암술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술과 만나서 수정을 하고, 우리 민들레는 벌이나 나비로 수정되기 때문에 서양 민들레가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서양 민들레는 꽃받침이 위로 되어있고, 우리 민들레는 꽃받침이 아래로 쳐진 것이라고 배웠다.

소나무도 사립처럼 다른 소나무와 수정하여 품종이 좋게 나오기 하기 위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소나무는 잎이 2개 있고 잣 나무는 잎이 5개 있다는 사실과 소나무가 솔방울을 많이 맺는 것은 주변환경이 안좋아서 대를 많이 이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죽은 나무는 거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죽은 나무가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딱따구리는 거의 죽은 나무에 집을 짓는다. 또 죽은 나무에 버섯이 자라고, 많은 벌레가 살기 때문이었다. 참 놀랍다. 식물은 너무 착하다는 생각이 든다. 살아서도 여러 생물에겐 도움을 주는데 죽어서도 여러 생물에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죽은 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자연을 본받아 남에게 아낌없이 주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 서로 돕고 도와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월미산에 있는 연못도 관찰하였다. 물방개와 올챙이, 물벼룩을 채집하였다.

자세히 보니 물방개가 물벼룩을 계속 잡아 먹고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물방개 같은 포식자도 중요해요. 물방개 같은 포식자가 없으면 물벼룩이 많이 생겨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요. 이것을 먹이사슬이라고 해요.”

라고 말씀하셨다. 나도 먹이사슬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말을 되새기었다. 그 이유는 하찮다고 동,식물을 죽이면 인간도 먹이사슬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었다.

자연식 파레트 만들기 활동도 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식물도 우리말을 들을 수 있다고 미안하다고 말한 뒤 꺾어오라고 하셨다. 여러 가지 색이 보였다. 그것이 진짜였다면 그림을 그릴때 사용하면 자연의 맛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을 텐데...

천연 기념물인 ‘황조롱이’ 라는 다친 새가 다 치료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함께 날려 보냈다. 자연의 소중함을 간직하며 날고 있는 ‘황조롱이’ 새가 참 아름다웠다.

월미산 지킴이가 되어 자연과 생명에 대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이 세상에는 사람만 살아갈 수 없다. 동물과 식물이 있어야 사람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였으면 좋겠다.



## 사회공헌활동

SK는 지난 1979년 정립된 SK경영관리체계 (SK Management System, SKMS)를 통해 '인간위주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간위주의 경영이란 인류에게 기초한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이윤이 기업내부 및 외부의 구성원 모두에게 나누어 지도록 하는 경영을 뜻합니다. 이러한 경영원칙 아래 SK 울산 CLX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회 복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불우 이웃 돕기



Fig 54. 불우이웃 돕기 행사

SK는 지난 1970년대부터 정신박약아동과 지체부자유아동의 삶의 터전인 태연학원과 메아리복지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자라나는 울산양육원, 시각장애인을 돌보는 맹인복지원 등 SK 울산 CLX 인근에 소재한 8개 사회복지시설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울산석유화학공단 인근지역에 주거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동절기 난방용 기름지원,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경로잔치 지원 등의 불우이웃 돕기를 몸소 실천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매월, 자사 공장/물류센터 인근 초등학교 학생중 급식비가 없어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 2003년의 경우 총 35개 초등학교 982명의 점심식사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 소년소녀 가장 돕기



Fig 55. 소년·소녀가장돕기

SK는 고객이 SK 주유소를 이용하는 횟수만큼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소년소녀가장에게 기부하는 '고객참여·매출연동형 기부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3년 추석시즌에는 약 1.2억원을 적립하여 쌀·과일 등 추석선물을 제공하였으며, 입동에는 약 1.8억원을 적립하여 겨우내 쓸 수 있을 만큼의 난방유 제공, 2004년에는 전국 소년소녀 가장 중고생 65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복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으로 하여금 직접 참여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대의마케팅 (Cause-Related Marketing)으로써 고객과 회사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프로그램화하고 있습니다.

### 장학사업



Fig 56. 중·고교생 장학금 수여식

장학사업은 SK그룹의 사회공헌 이념이 바탕이 되어 창사 이래 지속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서 저희 SK 또한 1960년대 설립된 「울산건설간담회」에서 시작된 산학협동 장학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SK는 울산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우수 학생 5명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으며 1992년부터는 매년 우수한 중·고교생 100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울산 CLX 인근지역에 소재한 8개 초등학교의 각종 행사 (어린이날 행사, 운동회 등) 및 졸업식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균형적인 장학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